

테마칼럼

공간과 일상

문화의 인기

디자인 세상

과학과 경영

북경 '798파산즈'와 광주교도소



한득염

광주에서 북경 파산즈처럼 문화발전소로서 사용가능한 공간은 어디가 있을까? 광주교도소는 어떤가. 항쟁체험공간, 교도소호텔, 문화발전소를 혼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딱'이지 않는가.

근자에 현대도시들은 거의 대부분 문화도시와 환경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북경은 올림픽 개최와 함께 깨끗한 문화도시가 되고자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미술창작 공간인 북경 798 파산즈는 새롭게 등장하는 세계 미술시장에서 중국의 잠재된 예술적 지력을 느끼게 한다.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1시간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파산즈는 과거에 원자폭탄과 인공위성의 부품을 생산하는 군수공장이었다.

창작의 공간에서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작품성이 뛰어나고 예술시장이 서게 되자 수많은 화상들과 미술애호가들이 찾아들면서 갤러리로 변모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고 있으며 북한의 작가도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올림픽기간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을 찾아가게 되었고 최근 중국예술가들의 작품이 세계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파산즈는 서구인들이 베이징에서 자금성과 만리장성 다음으로 가고 싶어하는 명소가 되었다.

경제성장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한 중국 현대미술은 국제전시나 소더비같은 현대미술 경매시장에서 빠지지 않는 귀중한 존재에 속한다. 특히 외국계 미술자본의 상업화자들이 서서히 중국으로 들어오기 시작,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남형의 외관을 지닌 공장은 독일인이 설계하고 구 소련인이 시공을 하였다 한다. 현재도 문화혁명 당시 모택동의 교시가 그대로 남아 있는 벽면은 노출된 콘크리트의 면을 긁어내고 하얀 페인트칠하거나 아무런 마감도 없는 상태 그대로 작품이 전시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술공간이 된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미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버린 파산즈에는 가난한 예술가들의 작업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이곳이 유명해지자 겨우 몇년만에 임대료가 많이 올랐고 예술가들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베이징 외곽의 다른 대안공간으로 흩어지고 있다.

광주에서 북경 파산즈처럼 문화발전소로서 사용가능한 공간은 어디가 있을까? 몇 해 전부터 광주교도소가 이전되면 그 공간을 광주항쟁을 중심테마로 하는 체험, 혹은 기념공간으로 하자는 제안은 가끔 있었다. 그러나 파산즈와 같은 문화공간이나 교도소호텔로 개조하여 사용할 수는 없을까? 아니면 항쟁체험공간, 교도소호텔, 문화발전소를 혼합한 복합문화공간은 어떨까? 법무부와 광주시가 창의적인 문화예술공간을 만들 아이디어와 용기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문화아이템이다.

〈전남대 교수, 문화재위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칼럼



이원구

노화란 인연 주름은 주름과 함께 피부의 탄력이 없어지고 처지는 것이 문제다. 여성은 20대 후반부터 피부가 노화하기 시작해 30대가 넘으면 빠르게 노화한다. 얼굴 탄력이 점차 떨어져 축 늘어지고, 주름이 피부 깊숙이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노화는 피부뿐 아니라 몸매에서도 나타난다. 근육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는 나잇살이 생겨 볼륨이 줄어들고 살이 처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오래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다. 바이폴라리는 얇은 주름에 적용되며 단기간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테너는 수술이 아니어서 마취가 필요 없다. 통증과 열 손상이 적어 화상 등의 부작용도 매우 드물다. 특히 시술 후 2~3주 동안 콜라겐이 점차 증가해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피부탄력과 주름개선, 지방제거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인 것이다.

탄력적인 피부, 주름 펴고 살자

고 있다. 테너는 고주파를 이용해 피부 깊숙한 곳까지 에너지를 전달,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비수술적인 방법이다. 테너 고주파 시술은 강력한 고주파로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여 주름을 펴는 특징이 있다. 테너는 고주파가 진피층의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느낌 없이 노화에 의한 피부 처짐이나 잔주름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 테너는 일반 보톡스로 치료가 어려운 팔자주름, 목주름, 처진 눈가 주름 등 탄력 없는 피부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복부나 허벅지 등에 부분지방이 많고 셀룰라이트가 심한 여성들에게 적합하다.

시술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주 간격으로 3~5회 정도 시술받으면 만족할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술 후 흔적이 남지 않고 시술시간도 보통 40~50분 정도로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을 주지 않는다. 또한, 마취가 필요 없고 주사 바늘로 찌르거나 칼로 쪼개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픔이나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테너는 주름치료에 사용했던 보톡스, 필러에 비해 장기간 치료효과를 유지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보톡스, 필러가 6개월 ~ 2년이 지나면 다시 주사를 맞아야 하지만, 테너 시술은 일반적인 2~5년 정도 주름제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탄력이 나 오공, 주름 등이 개선되고 고주파로 인해 피하지방까지 용해되기 때문에 얼굴이 전체적으로 탄력 있고 작아진 느낌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시술 뒤 어느 정도 작아진 얼굴을 느낄 수 있어 V라인을 만드는 데도 효과적이다. (SM美 성형외과 원장)

패스트푸드에 '비만 위험' 경고문구 표시했으면

닭뿔살에는 '흡연 경고' 문구가 표기돼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패스트푸드 겉면에도 '비만 위험'이라는 안내표기를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시행하길 바란다. 두달 전 방학 때 아이가 가져온 가정통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특정란에 '비만 위험'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이는 과자와 라면류, 치킨, 피자 등을 좋아한다. 패스트푸드에는 지방, 나트륨 등

의 함유량이 높아 비만을 초래하는 등 인체에 해롭다. 소아 비만의 경우 성인이 됐을 때 고혈압·당뇨병같은 심각한 질환을 앓을 확률이 높다. 아이의 건강 때문에 자제시키고는 있지만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과자 등 패스트푸드류에는 닭뿔살의 흡연경고 문구처럼 '비만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했으면 한다. ▲임정화·광주시 동구 총장로2가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평론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기고

나일환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총장축제가 열린다. 도심 속 길거리 축제 자리잡은 총장축제가 올해엔 더욱 규모가 커진 거리 퍼레이드로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수많은 추억의 볼거리 행사들이 이어진다고 하니, 지난 세월 일차 모자를 쓰고 풀빵을 먹으며 총장로 거리를 활보했던 세대들은 추억의 감미로움에 빠져들 것 이다. 총장로는 광주의 대표 중심가로서, 일제 식민 통치 하에서는 '본성동'으로 불리다가 1947년부터 임란 영웅 김덕령 장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그의 시호를 붙여 부르고 있다. 총장로와 주변에는 광주우체국, 만남

이 몸에 내 없는 불이 나니 끝 물 없어 하노라' 이 시조는 광주 석서촌 태생인 총장공 김덕령 장군이 임란때 의병장으로 활약하였으나 적장과 내통한다는 이봉학의 모함으로 투옥되어 죽기 직전에 자신의 결백을 말하는 억울한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추억 속의 총장로를 거닐며 한 번쯤 의미함도 좋으리라. 무덤의 품안에 총장로는 젊음이 넘친다. 시가 흐르고 낭만이 있다. 또 환희가 있고 꿈이 있다. 광주의 빛의 도시이고 열정의 도시이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 총칼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최후 항전까지 불사하는 투혼을 보여줬던 민주화

거닐어 보고 싶은 총장로

의 광장, 금남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남도예술관, 예술의 거리 등 볼 곳이 여럿 있다. 그 중에도 일명 '우다방'이라 불리던 광주우체국은 돈 없는 연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장년층 이상에게는 누구나 애뜻한 추억이 서린 곳이다. 필자 또한 현실을 잠시 잊고 지난 날을 회상하자면, 볼레 영화관에 들어갔다가 순시하는 선생님께서 발각되어 황급히 도망치던 고교 시절, 추억의 동방극장 앞 왕대꽃집에서 벚꽃과 밤을 지새던 청년시절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총장로 거리 뺑짐에는 중·고등학생들의 시화전이 열리고 화성회관 등지에는 문화의 밤 행사가 자주 열리기도 했다. 화성회관 도서관에서는 밤을 잊은 학생들이 별을 보고 귀가하며 시 한 수를 읊조리던 낭만의 거리이기도 했다. '출산에 불이 나니 뭇다 귀 꼴다 불는 다 / 저 뿔 불은 끝 물이나 있거니와 /

의 성지다. 그러기에 광주가 예향이요, 아시아 문화수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호남인들이여! 추억의 총장로를 거닐어 보라! 그리고 문화 수도의 핵을 알아 보라! 그곳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역사를 뒤돌아보며 총장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도 이제 추억과 낭만이 숨쉬는 총장로의 거리를 활보하며 지난날 예술의 향기가 넘치고 삶의 정이 넘치는 빛고를 광주의 역사를 돌이켜 보자. 그리고 총장축제를 통해 미래의 광주를 보아야 한다. 이번 축제의 중요한 과제가 문화수도의 중심축이 될 추억 속의 총장로에 문화수도의 핵이 있음을 모두가 공감해 보자는 것이다. 총장축제는 민과 관이 하나 되어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을 몸으로 느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국사이버문학인협회회장〉

먹을거리 불신 부르는 원산지표시 위반 강력 단속을

얼마 전 전국 대형음식점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조사했는데 그 단속 결과를 보니 '역시나'였다. 5개 업소 중 1곳 이상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 음식점들은 단속반과 범망을 피하며 교묘히 수입고기기를 한우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었다. 이는 먹을거리 불신으로 이어져 답답할 뿐이다.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수입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고 업소가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 뿐만이 아니다.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내 한우농가와 한우

산업을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수입고기기를 한우고기로 알고 먹은 소비자는 맛이 떨어질 경우 앞으로는 한우를 찾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값싼 수입고기를 먹겠다고 작정하면 결국 한우농가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된다. FTA에 맞서 힘겹게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을 생각해보자.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를 우롱하고, 선량한 한우농가까지 피해를 입히는 악덕 불법행위이므로 강력하게 단속하기를 바란다. ▲정미현·광주시 광산구 북동동

시설

'영산강 뱃길 복원' 진지한 접근 필요하다

영산강 뱃길 복원이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지난 17일 영산강 하도(河道) 준설과 수질 개선, 뱃길 복원 등을 골자로 하는 '영산강 프로젝트'의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영산강을 친환경적으로 살려 뱃길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영산강 뱃길 복원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된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찬반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폭포, 나주, 담양, 화순 등 영산강 유역의 8개 시·군은 적극 찬성하고 나섰고 일부 환경단체는 뱃길 복원이 대운하 건설의 연장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지사도 뱃길 복원사업이 대운하 건설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운하 건설이 제기되기 전인 지난 2004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물류에 치중한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강과 강을 연결하는 대운하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개인적 의견도 피력했다.

대운하 건설이 아닌 친환경적 뱃길 복원이라면 반대할 이유는 많지 않다. 영산강 오염은 심각하다. 1981년 영산강 하구둑을 완공한 이후 퇴적물이 30여년 동안 쌓여 공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대로 두면 '보존'이 아닌 '방치'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영산강 프로젝트에는 2015년까지 무려 5조5천550억원이 투입된다. 성장동력을 잃고 있는 광주·전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다. 영산강 주변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해 관광자원화하는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의 조달과 환경과 피의 최소화다. 민간자본에 과다 의존하면 난개발을 부를 수 있는 만큼 국비를 최대한 끌어들이야 한다. 충분한 사전환경영향조사 등으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지역사회는 소모적 논쟁을 접고 뱃길복원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하기 바란다.

지방 반발에도 수도권 규제 완화할 건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걱정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빠르면 다음달 구체적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하니 규제완화의 큰 틀은 짜여진 것이나 다름없다.

대표적 대상이 공장총량제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균형발전 내내 매년 신·증설할 수 있는 공장면적 총량을 정해 두고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왔으나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제단체와 수도권 차지단체들은 그동안 공장총량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정지권도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등은 수도권 나후지역과 자연보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와 정지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되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반발은 피할 수 없다.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비수도권의 물락을 초래해 오히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 수도권과 과밀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균형발전 동시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나친 욕심에 불과하다. 수도권의 강력한 흡인력을 감안하면 일단 풀린 규제는 견집할 수 없는 사태를 부를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모적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선(先) 지역균형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방의 불합리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경쟁과 효율만 강조해선 지역균형발전은 이룰 수 없다. 수도권보다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無等鼓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 후 20년이 지났다. 서울올림픽은 같은 해 10월 2일까지 16일만에 걸쳐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서울올림픽의 기본 이념은 '화합과 전진'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최대의 참가, 최상의 화합, 최고의 성과, 최최의 안전, 최대의 절약'을 대회 목표로 했다. 비록 서울올림픽이 1980년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의 국면전환용으로 개최된 측면이 있지만 올림픽 이후 대한

민국은 민주화의 길을 밟게 된다. 또 대한민국은 올림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활동 영역을 넓혔으며 경제의 규모와 수준도 업그레이드 됐다.

서울올림픽 후 대한민국의 모습은 크게 바뀌었다. 서울올림픽을 치르고 20년이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에는 명암이 교차 안전, 최대의 절약을 대회 목표로 했다. 비록 서울올림픽이 1980년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의 국면전환용으로 개최된 측면이 있지만 올림픽 이후 대한

'88 그 후 20년



특히 서울올림픽에는 이념을 달리하던 동서진영 국가가 모두 참가함으로써 대화가 지향하는 인류화합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올림픽은 일부 운영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올림픽 사상 최고의 시설을 갖추었다는 극찬도 함께 들었다.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와 경제 재도약의 '이정표'가 됐다. 비록 서울올림픽이 1980년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의 국면전환용으로 개최된 측면이 있지만 올림픽 이후 대한

의 난기류 속에 시민의 삶은 그다지 여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국민들이 누렸던 감흥이 너무 컸던 탓도 있겠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서울올림픽 개막 20주년을 맞아 17일 체육계 등에서는 조촐한 행사를 가졌으나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별로 크지 않았다. 그만큼 현실의 무게가 짓눌린 탓으로 해석된다. 1988 서울올림픽의 빛과 그림자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20년을 그려보는 것도 꽤 의미있는 일이다. /박지경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information.